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모바일 항공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발표**

*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서 범지역 공기질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액클라이마 모바일 매핑 기술을 구글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총 10개 지역사회 중  
브롱크스, 버펄로, 주도 지역, 맨해튼 등 네 곳에 배치*

*현재 역량 개발에 100만 달러, 추가 200만 달러를 지역사회 주도 대기 모니터링에 지원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대기 질 및 온실가스 모바일 모니터링 이니셔티브의 역사적인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주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환경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 개 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되며, 향후 총 10곳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범지역적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관찰하려는 노력으로, 뉴욕주가 시행한 조치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에서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액클라이마(Aclima)의 모바일 매핑 기술 및 전문 분석 기술을 활용합니다. 브롱크스, 버펄로/나이아가라 폴스, 주도 지역, 맨해튼에서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추가로 여섯 곳의 지역사회에서 이번 가을부터 모니터링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중 100만 달러는 현재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역량 개발 보조금(Community Air Monitoring Capacity Building Grants)에서 이용 가능하며, 추가 20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기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주정부의 노력을 이어갑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주가 되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킨 환경 부정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레이크 이리(Lake Erie)를 오염시킨 철강 플랜트 근처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기 질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오염을 해결할 전략을 세우는 한편, 주정부의 선도적인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 모니터링은 우리에게 온실가스 및 기타 대기 오염 유발물질 감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공중 보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역의 모든 주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오염으로 역사적인 피해를 입어 온 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액클라이마의 모바일 모니터링 장비는 범지역 데이터를 수집해 온실가스를 비롯한 기타 유해 대기 오염 유발 요소를 감축할 수 있는 해결책을 촉발하며, 뉴욕이 전국을 선도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기후 정의 워킹그룹(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CJWG)과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대상으로 10개 지역사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CJWG의 기준에 따라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공정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사회는 버펄로/나이아가라, 주도 지역, 브롱크스, 맨해튼, 로체스터, 시러큐스, 마운트 버논/용커스, 브루클린, 퀸즈, 햄스테드 등입니다. 각 지역의 모니터링 범위는 지역사회의 의견 및 오염원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지역 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고 유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해결책을 실행합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겸 기후 행동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 공동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신속하게 랜드마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사회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증액하여 환경 오염으로 너무 큰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 온 지역에서 중요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비롯해 오늘 발표된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 및 웰빙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300만 달러 지원 등 Hochul 주지사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반영합니다. 환경보존부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기후 및 환경 정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 우리의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이자 기후 행동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Doreen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은 소외된 지역의 대기 오염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유해 요소를 확인하려는 환경보존부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주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 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0월 접수를 완료한 자격 신청(Request for Qualifications)에 이어, 뉴욕주는 구글 공공 부문(Google Public Sector)과 계약을 통해 액클라이마의 모바일 센싱 기술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대기질 측정 결과를 얻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액클라이마의 대기 모니터링 데이터는 장비에 부착된 모바일 센서를 통해 수집하며, 어려운 시기, 일, 계절 별로 블랙 수준의 대기 오염을 측정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수준의 대기 오염원을 최초 스크리닝하여 추가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정부의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어 배출가스를 감축하고 보건에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며 대기 오염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불공정하게 피해를 받는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기후 주간(Climote Week) 중 최초로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2022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환경보존부에 과거 발표되었던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역량 개발 보조금을 500,000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통해 현재 선정된 지역사회 10곳에 위치하거나 이러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개발 보조금은 대기 오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서 오염 노출을 줄이거나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 강화 또는 개발을 비롯해, 지역사회가 주정부 대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나 용도가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기회는 환경 정의 관련 자금을 집행하는 주정부 환경 보호 기금(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제공됩니다. 개별 보조금은 50,000 달러에서 최대 100,000 달러입니다. 환경보존부는 현재 뉴욕주 보조금 게이트웨이(New York State Grants Gateway)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기한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추가 2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발표되어 총 지원금은 300만 달러이며, 이러한 자금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대기 모니터링에 참여 또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역량 개발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탄소 배출이 없는 기술 투자를 식별하고 선정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타 배출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원금 기회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나, 역량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00,000 달러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훈련, 대기 모니터링 장비 구입, 센서 기술, 지역사회 참여, 교육, 상담 지원을 진행하여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도 대기 모니터링 지원 보조금은 최대 500,000 달러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액클라이마는 뉴욕 기반의 기후 기술 스타트업으로 미국의 내륙 도시에서 녹지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워(BlocPower)가 액클라이마 및 액클라이마의 지역사회, 정부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여 인력을 훈련하고 총원하여 액클라이마의 범지역 모바일 환경 센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블랙파워는

액클라이마에 인재 모집 및 인력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활용합니다.

**David Herzl 액클라이마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력에 힘입어, 뉴욕은 주정부로서 최초로 블록 단위로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를 측정하여 시급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의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지원하여 배출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기후 행동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은 전국 및 전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사람들을 지원하며, 최전선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읍니다."

**Brent Mitchell 미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 구글 공공 부문 관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액클라이마와 협력하여 뉴욕주가 오염원을 거리와 블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액클라이마와 구글 공공 부문을 통해 주정부는 오염의 패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질뿐 아니라 주 전역의 지역사회 공중 보건 개선에 필수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Donnel Baird 블럭파워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는 기후 혁신, 기후 개선, 양질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후 일자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욕이 최초로 투자한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뉴욕주가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기후 위기 해결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오염이 심한 지역사회에서 대기 질의 영향에 대한 범지역 정보를 파악하여, 주정부가 완화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5% 감축하겠다는 뉴욕주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모바일 모니터링은 야외 대기 오염 측정을 위한 기존 환경보존부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환경보존부는 50개 이상의 장소에서 자동 및/또는 매뉴얼 장비를 통해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에 대한 환경보존부 보고서는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질 시스템\(Air Quality System, AQS\) AP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또한 [대기 질 인덱스\(Air Quality Index, AQI\) 예측](#)를 통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일부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현재 대기 질 측정 데이터](#)를 뉴욕주에 제공합니다. 또한 뉴욕시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는 주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특정 배출가스 발생원을 비롯해 기타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우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지역 대기 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20개에 대한 35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거의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x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액클라이마 소개

액클라이마는 대기 상태를 진단하고 대기 변화를 촉발하는 오염을 추적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합니다. 이동 및 정주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액클라이마는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를 전례 없는 스케일로 측정하고 블록 단위의 측정 역시 가능합니다.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인 액클라이마 프로(Aclima Pro)는 수십억 개의 과학적 측정 결과를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합니다. 무료 앱인 air.health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주소별 대기 및 기후 정보 매핑을 제공합니다. 액클라이마는 목적 중심의 기술 기업으로 대담한 기후 행동을 촉발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모두를 위해 청정한 대기를 제공합니다.

### 블럭파워 소개

블럭파워는 브루클린 기반의 기후 기술 기업으로 미국 도시 녹색화를 추진합니다. 2014년 창립 이래, 블럭파워는 1,200개 이상의 건물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일정에 앞서 예산 내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블럭파워는 특허를 출원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도시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분석, 리싱,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고객들은 매년 에너지 비용을 20~40% 절감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